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3.

통일학교 만들기

2014. 9. 12.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주최 :  Konrad
Adenauer
Stiftung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지부

주관 :  **여명학교**
Yeomyung School

시간표

| | |
|-------------|--|
| | 9월 12일 |
| 13:00~13:30 | 개회사 : 이흥훈 교장 축사 : 에쉬보른 소장 |
| 13:30~14:30 | 발표 1.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교육제도 및 교육 시설 재건과 동독인들의 참여” – Jürgen Scharf |
| 14:30~14:40 | 휴식 |
| 14:40~16:00 | 발표 2. “독일 교육 통합 과정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추론과 제언” – 김신동, 조명숙 |
| 16:00~16:10 | 휴식 |
| 16:10~17:20 | 종합토론 |
| 17:20~17:30 | 폐회 |

차례

"독일의 동서독 교육시스템 통합 경험"

– 위르겐 샤프(Jürgen Scharf) 주의원

1

"독일 교육 통합 과정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추론과 제언

– 김신동 (여명학교 교사),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17

질문지

Session 1

"독일의 동서독 교육시스템 통합 경험 "

위르겐 샤프(Jürgen Scharf) 작센 안할트주 의원

참석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1989/90년 평화혁명 당시 월요시위의 연설자들이 시위참여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위참여자들끼리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위참여자들은 동독의 간부들과 동독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새로운 사회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도 외쳤습니다.

동독의 사회주의 독재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매우 유리한 세계사적 조건이 조성된 순간 즉, 아주 잠시 기회의 창이 열린 순간 자국의 국민들이 지배자들을 왕좌에서 밀쳐냈습니다. 과연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소비에트연방을 개혁하고 민주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과 유럽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제 경험과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 가능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1952년 독일 동부지역 즉, 구 동독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로, 동서독 간 국경에서 한 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지금도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 때문에도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때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항운동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회는 우리가 "순응과 거부 사이(zwischen Anpassung und Verweigerung)"¹⁾의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는 학생으로서 교사들 중에 공산주의 노선을 매우 엄격하게 따르면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해당 과목의 전문지식 전달에만 집중하며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부분은 가능한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매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가 40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상이 다른 자들(Andersdenkende)의 표현 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만 해도 정치적 농담을 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었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독의 최소 2/3 정도의 지역에서는 서독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고, 서독 라디오 청취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서독 방송을 시청한다는 사실을 밖에서 이야기하면 어머니께서 일자리를 잃게 되신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주의를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직장에서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전날 저녁 방영된 서독 방송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직원은 소외될 만큼 서독 방송 시청이 일반화되었습니다.

1) Zwischen Anpassung und Verweigerung, Dokumente aus der Arbeit des Bundes der Evangelischen Kirchen in der DDR, Evangelische Verlagsanstalt, Leipzig 1995

저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 철과 색채 관련한 응용연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18개월 동안 국가인민군(NVA)에서 의무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수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절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동독의 학교들은 군대와 함께 가장 일관성 있게 중앙집권적으로 그리고 공산주의적으로 통제되었던 국가 산하의 기관이었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동독의 학교교육은, 특히 수학 및 자연 과학 분야의 교육은 매우 높은 전문적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외국어 과목의 경우 교사들이 외국과 교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외국어는 러시아어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영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부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외 기타 외국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미술과 음악도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술분야를 위한 전문학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일명 "국민과목(Staatsbürgerkunde)"이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실질적인 지식전달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수업은 무엇보다 국가이데올로기를 주입하기 위하여 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목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은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당원이어야 했습니다. 동독의 민중교육(Volksbildung) 장관은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중앙위원회(ZK) 서기장 즉, 동독 최고권력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혁명 당시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것 중 하나가 학교의 민주화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교에는 해고라는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체제에 어느 정도 "순응"한 교사들만 남아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교의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학교행정 분야는 이러한 문제가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소개한, 1989년 평화혁명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과연 실질 학교정책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수 많은 교사들은 공산주의 및 이데올로기라는 족쇄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들조차도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학교를 원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사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과거의 태도 때문에 믿을 수 없고 "힘이 있는(belastet)"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민과목(Staatsbürgerkunde)을 가르쳤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사로서 부적절한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많은 곳에 설치된 지역 조사위원회들은 일부 교사들에게 대하여 용납할 수 없으며 해고되어야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종종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져 훗날 다수의 노동법 관련 소송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1989년에서 1990년대 초 사이 동독에서는 급격한 변화로 교사들은 불안을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매우 활발한 공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의의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들은 다년 간에 걸친 프로세스를 통해 현대적이고 실력 있고 민주적인 학교로 전환될 수 있었다. 1991년 5월 24일 주의회는 학교개혁법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위한 법적인 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1989년에서부터 시작해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전환기에는 계속해서 법적 불안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1990년 공립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사들은 연방주 산하 교사로 전환되기 위해 새로 교사직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상당히 불쾌해 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동독 시절 학교들이 정권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약 90%의 기존 교사들이 재고용되었습니다. 재고용이 거부된 경우는 일명 한-과목-교사, 국민과목(Staatsbürgerkunde) 교사나 개척자지도자(Pionierleiter),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첩보기관인 "슈타지"의 주민 감시를 위해 비공식적 활동을 했던 것으로 입증된 교사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작센-안할트 주는 학생 수에 비해 전체 교사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사 수 조정을 위한) 일반 해고도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독 출신의 교사를 독일연방공화국의 학교제도를 모델 삼아 도입된 새로운 학교제도 안에 재편입시키는 일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²⁾

2) 의미적으로 인용함. Schule der Frühaufsteher, 20 Jahre Bildungspolitik in Sachsen-Anhalt S. 137, Markus Weilandt, Böhlau Verlag Köln Weimar Wien 2011

공립학교의 개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교사재교육을 통해 동독 출신 교사들의 전문지식 결핍을 가능한 빨리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출신의 외국어 교사들은 드디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관한 문화적 지식을 보충하고 해당 언어의 현대어 지식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교사들은 교과내용 역시 완전히 새롭게 습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는 설치된 적 없는 과목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과목(Staatsbürgerkunde)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사회과목(Sozialkunde)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해당 과목을 위해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 동독 출신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이 과목 교사가 양성되기도 했지만, 서독 출신 교사들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리, 카톨릭교 교리, 개신교 교리 등과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토론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학교의 변화에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어릴수록 변화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저희 딸은 당시 11살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실에 걸려 있던 에리히 호네커의 사진이 없어졌어요. 대신 꽃이 있는 그림을 그 자리에 걸었어요." 호네커는 당시 동독의 국가원수이자 서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더 이상 안 해요." 이것은 사회주의 청소년단체 회원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요.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물론 일부 고학년 학급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어째서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몇 주 전과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냐고 질문을 해 교사가 학생들과 어려운 토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는 교사가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월요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자, 저희 부부는 딸아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월요시위"는 수 주, 수 개월에 걸쳐 월요일 저녁마다 개최된 평화적 집회였습니다. 한 번은 집회에 참석하는 중에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언젠가는 역사책에서 찾아 읽을 수 있게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자 어린 딸이 지금 얼마나 희

귀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생각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저희 딸과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서 서독 출신의 교사들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독일통일과 함께 서독 지역으로부터 수 많은 일명 재건-지원자(Ausbauhelfer)들이 동독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이 동독 지역으로 오면서 동서독 사람들 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친분관계도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새로운 삶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 문제들에 대해 침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통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입에서 말씀 드렸듯이 동독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독의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1980년대에는 점점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을 시 서독에 사는 친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서독에 사는 삼촌의 70세 생신에 삼촌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문을 통해서 제가 서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 서독은 낯선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법체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독일통일은 법적으로 보면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 편입 과정은 1990년에 체결된 "경제, 통화,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과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1990년 10월 3일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독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동독 사람 중 이러한 변화에 쉽게 적응한 사람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어야 할지, 아니면 새 헌법의 제정을 통해 독일의 기본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되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서, 그리고 노동자평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동독의 편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안정성(Rechtssicherheit)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독은 서독에 편입되었습니다. 토론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평화혁명이 과연 "혁명"이기는 했던 것인지, 1989/90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정치적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혁명을 통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엘리트 교체가 일어나는데, 독일에서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서 엘리트 교체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독 간부 출신의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에 빠르게,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독일국민들은 이것이 불공평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시 그런 사람들을 "벤데할스(Wendehals)"라고 불렀습니다. 벤데할스는 몸 길이가 약 17cm 이고 깃털 색이 회갈색인 독일 토종새인데, 한국에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데할스(벤데(회전)+할스(목))라는 이름은 이 새가 목을 180도 회전할 수 있어서 붙여졌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89/90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태도를 재빠르게 180도 바꾼 사람들을 벤데할스라고 부르며 정치적으로 비꼬았던 것입니다.

서독 지역에서 행정지원을 위해 온 지원자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1990년 10월 이래 저는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서 1994년까지의 첫 임기 중 저는 201개 법안 결정에 참여했는데, 그 중 일부 법의 이름은 그 전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법의 필요성은 더욱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독 지역 출신의 자문과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신설된 주행정부가 가능한 빨리 법적안정성을 가지고 가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거의 모든 주 산하 기관에 행정-지원자가 필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지원자의 도움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통일 과정에서는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겪은 큰 어려움이나 소란,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감은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통일이 계속해서 성공사례라고 소개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1990년대 초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받는 임금의 35% 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동독 지역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인 보수였지만, 개인에게는 기본

나쁜 일이었습니다. 또한 서독에서 온 지원자들 중에는 서독에서는 달성하지 못했을 직업적 성공을 동독에서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 사람과 나란히 근무하는 동독 출신의 사람은 결코 실력이나 지적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지만 40년간 동독에서 지식 습득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독 출신의 사람이 갖는 승진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한참이 지나서야 그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건-지원자들은 진심에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져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이 전혀 새로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갈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빵을 (한국에서는 밥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곳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 먹어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현지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단체와 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만이 기존 주민들에 의해 수용되고, 재건-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서독 출신 지원자들은 여전히 동독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동서독 간 임금격차는 이제는 거의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99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최대 5년 내지 10년이면 임금이 전국적으로 평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완전한 평준화가 2020년쯤에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특수한 지원은 계속해 필요할 것입니다. 경제적 평준화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작센-안할트 주는 서독 지역 연방주들의 평균 GDP의 약 65%³⁾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주예산 중 자체 세수로 충당되는 비율⁴⁾은 약 55%입니다. 주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연방과 주 간 재정지원 (Länderfinanzausgleich)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충당됩니다.

여러분,

3)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 표 참조

4) Pressemitteilung Nr. 326/2014 Tabelle 2 vom 15.07.2014 der Staatskanzlei Sachsen-Anhalt

학교에서 독일 역사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동독에서는 5학년부터 역사수업이 개설되었었습니다. 역사수업 시간에는 마르크스주의 및 레닌주의에 입각한 역사상이 소개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단계별로 발전하였는데, 원시사회에서 시작해 노예소유사회에서 중세봉건사회로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의 탄생으로 제국주의가 절정을 이루었다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계급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동독에서는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지도하에 사회주의를 실현시키고 나면 최종적으로 공산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 역사수업의 핵심적 내용이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비꼬아 얘기 하면) 인류는 천국에 이르게 되겠지요.

모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은 이 틀에 대입되어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겠지만 동독 독재 40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은 비교적 단순한 이 틀을 그대로 믿었고, 그 결과 1989/90년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이후에 진정한 공산주의가 도래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시 자본주의로 후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거나 한 것이냐고 의아해 하며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 설명을 들으시면 학교 역사수업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즉각 드셨을 것입니다. 통일 이후 역사수업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었고, 현재는 학교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역사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공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그 동안 간과되고 잘못 소개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일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까지 숨겨졌었는지 또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었는지 인식시켜주는 노력도 기울여졌습니다.

저희 주의 주도인 마그데부르크에서는 2006년 유럽의회와 작센-안할트주가 공동 개최한 한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962-1806년 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 오토대제에서부터 중세 시대 말기까지(Heilige Römische Reich Deutscher Nation 962 bis 1806. Von Otto dem Großen bis zum Ausgang des Mittelalters)"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수 많은 마그데부르크 시민들은 처음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외국에

서부터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마그데부르크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박물관 앞 전시회를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자, 그제서야 마그데부르크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은 독일이 20세기에 경험한 두 번의 독재입니다. 독일은 1933년부터 국가사회주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유대인 박해와 학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독일과 일본이 당시 동맹국가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파시즘은 결국 몰락했지만, 동독지역에서는 거의 과도가 없이 국가사회주의 독재에서 곧바로 사회주의 독재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이 두 독재체제를 비교할 수 있고, 비교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질문에 대해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설득력 있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 독재를 하나로 통합시켜 서로 상쇄되게 해서는 안 되고, 두 독재를 각각 별도의 것으로 더해야 한다."⁵⁾

이 설명이 학교 역사수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1990년대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역사교사에게 1989년 이전에 역사 수업 시간에는 무엇을 가르쳤었는지, 어떤 역사적 해석이 맞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어떤 교사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을 해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역시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1989년 이전에는 일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침묵해야만 교사로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면서 학생들과의 논의를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교사들 중에는 장기적으로 권위가 손상된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학급 및 학교 중에는 스탈린주의 희생자들의 추모지 방문을 기피하고 독재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관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5) 의미적으로 인용

현재에는 이러한 논의가 훨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주의 독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독일이 경험한 두 번의 독재는 역사 속 사건일 뿐입니다. "후세대에 태어난 축복"은 아마도 독일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시각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럽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유럽을 구성하는 민족들 간에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발전에 독일과 프랑스 및 독일과 폴란드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게 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이웃국가의 청소년들이 훗날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공립학교제도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인 일명 대체학교(Ersatzschule)제도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학교란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가 아닌, 사립주체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주로 교회, 재단 또는 각종 단체와 연맹 또는 개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이미 설명 드렸듯이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제도는 평화혁명 당시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이것이 과연 얼마나 빨리 실현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저랑 제 아내 역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희 딸아이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1990년 6월 한 일간지에서 관심이 있는 부모와 교사들이 모여 학교 설립을 논의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 그 저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두 여성이었습니다. 한 분은 은퇴한 교회 주교의 아내였고 다른 한 분은 그분의 시누이로 오래 전 서독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우리가 원했던 형태의 학교의 실현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학교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본 사람들은 학교설립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우리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들에게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주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설립을 위한 모임에서는 저를 의지했고 저는 1990년 10월 거절해보지도 못하고 학교설립단체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학교의 재단위원회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이 학교에서 7년간 공부를 했고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전환기 또는 혁명기에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학교 설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고 싶어 관심을 보인 부모와 교사, 공공부문 종사자 그리고 물론 학교 설립과 운영 경험이 있으셨던 두 여성분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연세가 더 많으셨던 여성분은 서독 출신의 재건-지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동독 출신인 저희가 갖지 못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셨고, 저희 학교 설립을 지원하신 대가로 단 1센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분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분단되었던 조국을 위해 한 번 더 헌신 할 수 있을 만큼의 애국심도 갖고 계셨습니다. 학교 설립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자라고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자문을 제공하되 감독관 행세를 하지 않은 실력 있는 조력자들의 지원이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당시 정부가 민간 주체가 운영하는 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있었던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일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제 기능을 다하는 대체학교를 통하여 교육주체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쟁이 질서 있게 유지되면, 이 경쟁을 통해 학교의 혁신력이 장려될 것입니다. "경쟁은 사회를 활성화 시킨다"는 옛 말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정책 분야 이외의 분야로 시각을 돌려 1989/90년 평화혁명 또는 변혁기가 무엇을 가능케 하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동독 정권을 몰락시키고 동독 정권이 무력저항을 할 수 없을 만큼 정권을 무력화시킨 일련의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동독 지도부는 국제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서로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썼습니

다. 동독은 오래도록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가 되어서야 점점 독립된 국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는 동독과 서독 간 "기본조약" 즉,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관계의 기본토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기본조약에서는 동서독 모두 UN에 가입하기로 합의하였고, 1973년에는 양국이 모두 UN 회원이 되었습니다. 기본조약 덕분에 서독이 통일에 대한 바람을 버리지 않고도 양국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 및 서독이 체결한 동유럽국가들과의 조약 발효 그리고 앞서 언급한 기본조약의 체결을 통해 동서독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졌습니다. 상호이해에 대한 공동의 관심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로 귀결되었습니다. 1975년 헬싱키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최종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는 최종의정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동블록 입장에서는 전후 유럽 국경을 인정받게 되었고 서유럽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약속 받았다. 대신 인권 관련한 사항에서 양보를 해야 했다.

많은 관찰자의 눈에는 회의 결과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승자가 동유럽 국가들(특히 폴란드와 동독)의 국경불가침을 국제 조약을 통해 확인 받고 내정 "간섭 배제" 원칙과 (코메콘이 원했던) 경제협력을 보장받은 동블록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초기에 코메콘-국가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인권개선 관련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의정서에 명시된 인권 관련 사항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자유 사상가들과 인권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위한 기본토대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동독의 민권운동, 체코슬로바키아의 77헌장(Charter 77),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 등은 헬싱키 의정서를 근거로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동블록의 몰락에 기여하였고, 결국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동서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⁶⁾"

저도 이러한 평가에 동의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인권문제와 관련해 동독 주민들이 정권으로 하여금 책임을 물게 하는

6)
http://de.wikipedia.org/wiki/Konferenz_%C3%BCber_Sicherheit_und_Zusammenarbeit_in_Europa, heruntergeladen am 27.08.2014

성공사례가 늘어났고 그 결과 동독은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동서독 간 인적 교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저는 점점 찾아진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과 늘어난 정보의 교환이, 동독 주민들의 시민으로서의 용기(Zivilcourage)를 강화시켜주고 사회주의통일당(SED) 간부들로 하여금 점점 더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자유, 특히 정보와 여행의 자유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요구를 강화시켜준 변화과정,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존재로 소개되었던 "무자비한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누구든지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보다 나은, 보다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준 변화과정을 촉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헬싱키 의정서가 아니었다면 저도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서독에 사는 삼촌을 70세 생신에 찾아 뵙고 자유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이 동독 정권의 약화에 매우 크게 기여했습니다. 물론 서독에서 보내온 수 많은 소포들 역시 동독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소포를 통해 동독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분단된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독 주민이라고 해서 다 서독에 친척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포를 통해서 새로운 인맥과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1989년 평화혁명 당시 시위참여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자유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될 정도입니다. 25년 전보다 물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독일인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예전 사회주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동독 간부 출신 사람들도조차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독일통일이 역사 속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독지역의 경제회복은 1990년 심지어 비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통일이 독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시점 2013년 8월/2014년 2월 / 출처: "각 주의 경제력 총계" 연구회

| 연방주 | 국내 총생산 GDP | | 총 인구수 |
|----------------|------------|---------|----------|
| | 인구 1인당 | 총 | |
| | EUR | 10억 EUR | 1.000 |
| 바덴뷔르템베르크 | 37.472 | 407,2 | 10.868,1 |
| 바이에른 | 38.429 | 488,0 | 12.698,3 |
| 베를린 | 30.642 | 109,2 | 3.563,3 |
| 브란덴부르크 | 23.751 | 59,1 | 2.489,3 |
| 브레멘 | 43.085 | 28,6 | 663,3 |
| 함부르크 | 53.611 | 97,7 | 1.823,0 |
| 헤센 | 38.490 | 235,7 | 6.123,3 |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22.817 | 37,1 | 1.624,3 |
| 니더작센 | 30.149 | 239,0 | 7.926,5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33.621 | 599,8 | 17.838,4 |
| 라인란트팔츠 | 30.420 | 121,6 | 3.996,7 |
| 자를란트 | 31.834 | 32,1 | 1.007,0 |
| 작센 | 24.226 | 99,9 | 4.123,4 |
| 작센안할트 | 23.196 | 53,0 | 2.285,1 |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27.684 | 78,7 | 2.842,9 |
| 튀링겐 | 23.168 | 51,0 | 2.202,8 |
| 독일 | 33.355 | 2.737,6 | 82.075,5 |
| 베를린을 제외한 구 연방주 | 35.391 | 2.328,3 | 65.787,4 |
| 베를린을 제외한 신 연방주 | 23.585 | 300,1 | 12.724,9 |

Session 2

"독일 교육 통합 과정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에 대한 추론과 제언"

- 김신동(여명학교 사회교사)
- 조명숙(여명학교 교감)

I. 독일 통일의 이해

1. 동서독의 교류

1945년 패전 이후 동서독이 분단되었다. 승전국이던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이 다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영향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점령한 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되었고, 옛 소련의 점령지역은 독일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동독)이 되었다. 이는 수도인 베를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베를린은 서독의 서베를린과 공산주의 동독의 동베를린으로 나뉘게 되었다. 소련은 1948년 서베를린 지역을 봉쇄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자 하였으나 영국과 미국은 공수작전을 통해 이 도시에 생필품을 공급하였다. 베를린 봉쇄는 실질적 동서독 분쟁의 시작이었다.

한편 동베를린 지역에서도 소련의 체제 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1953년 6월 17일 동베를린의 노동자들은 공산당의 노동량 증가 조치가 실시되자 동맹파업을 전개했는데 이것이 동독 전 지역으로 확산되자 소련은 강경진압 하였다. 이후 1953년 한 해에만 약 33만 명의 동독인들이 탈출⁷⁾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61년까지 연 23만 명의 동독

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여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는 원인이 되었다.

독일은 1945년 이후 기민당(CDU)의 아데나워 수상에 의해 친서방 노선을 걸었다. 이는 서방세계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종전 이후 서독의 주권을 회복하고 안보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서였다. 그러나 1967년 독일은 종전의 대외 노선을 변경하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경은 1969년 사민당(SPD)⁸⁾의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 적극적인 동방정책으로 확대되었다. 베를린 시장 출신인 그는 시장재임 기간 동안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분단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접근을 통한 변화’의 슬로건을 걸고 가능한 한 폭 넓은 무역을 통해 동독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동독은 소련의 동의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소련과도 적극적인 외교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독과 관계개선의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1970.3)을 개최하고자 했다. 물론 2차에 걸친 회기가 열리는 동안 서독에서도 냉담한 분위기가 있었고, 이 회담이 큰 성과가 없었음에도 서독이 독일에 또 다른 국가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후 브란트 정부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모스크바 조약을 체결했고, 소련에 ‘독일 통일에 관한 서한’을 보내어 조약과 별도로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쳤다. 모스크바 조약 체결 후 독일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서독-서베를린 간의 통행문제를 해결하는 베를린 조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동서독 간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1971년 9월에는 ‘우편과 통신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어 이미 개통되어 있었던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전화선이 더 많이 개통되게 되었고, 12월에는 ‘통과협정’이 양국 간 체결되어 민간인과 일반화물의 동독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독은 이로 인한 모든 경비를 동독에 매년 지불하였다. 또한 서베를린에 거주하는 자들의 여

7)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2005. p.120

8) 독일 정당별 특징

기독민주연합(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기독교민주주의, 중도 우파

기독사회연합(Christlich-Soziale Union, CSU)-기독교민주주의, 중도 우파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사회민주주의, 중도 좌파

자유민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FDP)-자유주의, 중도 우파

좌파당(Die Linke)-사회주의, 유로코뮤니즘, 좌파

녹색당(동맹 90/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환경주의, 중도 좌파

행 및 방문교류에도 합의하여 서베를린에 거주하는 이들이 동베를린과 동독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적 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1975년 동독지역에 방문한 서독인은 773만 명에 달하였다.

1983년 경제불황을 맞게 된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대신 교류를 위한 다양한 조건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서독의 인적교류는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서독 정부는 동독인들이 재정적인 이유로 서독방문을 포기하지 않도록 연 100마르크⁹⁾의 환영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동서독은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5년 12월 문화협정을 통해 동서독이 서로의 문화와 사회활동을 알기 위해 관련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술대회와 음악회, 전시회 등이 열렸다. 또한 1973년부터 실시된 동독인들의 서독 TV시청이 문화협정에 따른 1987년 5월의 방송협력에 대한 합의로 확대되었다. 이에 양국에서는 프로그램의 매매와 교환,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이 가능케 되었으며, 서독 방송국에서는 동독주민들을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하였다.¹⁰⁾ 이번 독일 연수에서도 옛 동독 출신 인사들이 통일 당시(1989년도)에 어제 저녁에 본 서독 티비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인터뷰도 있다.

문화협정의 한 갈래로 동-서독 양국의 도시에서는 1989년 12월까지 총 62회¹¹⁾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이 자매결연은 통일 후 동-서독의 여러 제도가 안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동서독 통일의 과정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소련공산당 총 서기장이 되고 난 후 페레스트로이카-글라스노스트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동유럽의 구도를 크게 흔들게 된다.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더이상 소련의 간섭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폴란드가 동유럽 국가들 중 처음으로 공산당 독재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1989.9)

9) 당시 동독 돈으로 1,000마르크 이상 되는 돈으로 생필품만을 구하는데 쓴다면 2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이다.

10)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2011

11) 손선흥, 위의 책, p.248

동독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9년 여름 헝가리로 휴가를 나온 일부 동독인들이 오스트리아를 걸쳐 서독으로 탈출하게 된 것이다. 1989년 9월 10일 헝가리 정부가 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고, 동독 주민의 출국을 허용함으로써 9월말까지 3만 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¹²⁾ 헝가리와 서독은 인도적 차원에서 부다페스트의 서독 대사관에 있는 동독인들을 서독으로 보내기로 협의하였고, 서독은 헝가리에 10억 마르크(한화 약 5천억 원)의 경제 원조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매년 11월 평화를 위한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1989년 10월 9일부터는 7만 명이 참석하였다. 당시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은 소련 지도층의 지시로 시위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평화시위는 점점 확대되어 10월 16일에 12만 명, 11월 6일에 60만 명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또한 10월 말에는 동베를린, 드레스덴 등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1월 4일 동베를린 시위에는 100만 명이 참가하기에 이르렀다.¹³⁾

이와 관련하여 이번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TV를 보던 중 자신이 투쟁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서독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동독 시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가하는 변화에 대한 요구와 압박으로 결국 호네커(당시 공산당 서기장 및 국가평의회 회장)는 사임하게 된다. 호네커 사임과 더불어 동독은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

동독정부는 개혁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11월 8일 획기적인 여행 자유화 조치를 마련하여 11월 10일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공산당 선전담당 비서였던 샤보브스키는 11월 9일 오후 기자회견 말미에 여행자유화의 행정절차에 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는 이탈리아 특파원의 질문에 샤보브스키는 별다른 준비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부터’라고 대답했다. 이 소식을 언론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크게 보도하게 되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가는 검문소로 몰려들었다. 당시 상부의 지시 없이 주민들의 강한 통행요구에 압박을 받은 경비병들은 결국 밤 10시쯤 서쪽으로 가는 출입문을 열었고¹⁴⁾,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수였다.

12) 주 독일 한국영사관 홈페이지, <독일 통일 개관>

13) 주 독일 한국영사관 홈페이지, 위에 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후 1990년 10월 3일 통일독일이 선언되기 전까지 동서독은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먼저 동독은 서독인의 동독 방문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분단 된지 40년 만에 동서독인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 촉진을 위해 연간 2억 마르크(한화 약 천억 원)였던 지원금을 3억 마르크(한화 약 천 오백 억)로 인상하였다.

서독의 콜 총리(CDU-기민당)는 1990년 2월 ‘독일 통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독에 ‘화폐, 경제, 사회 동맹’ 결성을 제의함과 동시에 소련을 방문하여 독일 통일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지지를 얻어내었다. 이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회의의 총선이 개최되고 이 총선에서 동독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인 정당이며 조속한 통일을 주장한 기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회의는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이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동독시민들은 스스로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동독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3. 탈동자와 복지제도

1949년부터 1961년 장벽이 세워지기까지 약 273만 명이 동독을 탈출하여 연평균 약 23만 명이 동독을 떠났다. 특히 1953년 6월 17일 파업이 있었던 그해에만 약 33만 명의 동독인들이 탈출했다.¹⁵⁾ 장벽이 세워진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이주민은 총 60만 명으로 그 중 70%는 합법적 이주민이었다.¹⁶⁾

서독의 경우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탈동자가 발생하여도 기존 제도 하에서 충분히 잘 생활하며 살 수 있었다. 이미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탈동자들을 위해 별도의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도 사회·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탈동자들이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과 동일하게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었다. 탈동자들이 편지로 소포로 동독의 가족들에게 전한 삶이 동독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우리도 통일이 되면 저들처럼 잘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스스로를 서독으로 편입하도록 한 측면이 크다. 이는

14) 연합뉴스, 김경석, 2009/10/25 <장벽붕괴 20년> ② 필연이 만든 우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21/02000000000AKR20091021004300082.HTML>

15) 손선홍, 위의 책, p.120

16)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 재건과정』, 한울아카데미, 1997, p.109

통일 정부 구성 시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 여당인 기민당에 표를 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잘 갖춰진 복지제도 때문에 탈동자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통일과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였다.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타문화권자로서 탈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종의 사회적 노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부른 일반화는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어렵게 만들었다.

남한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특별법을 만드는 등 특별대우는 해주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는 현 복지체제보다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특별대우는 곧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부작용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적 노동으로 잘 파악하여, 통일 이후에 있을 혼란과 북한 주민들이 겪을 어려움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복하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탈동자도 독일 통일에 좋은 역할을 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독일 통일 직후 5년간이 가장 혼란했던 시기였다고 많은 이들이 답하였다. 물론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말이다. 동서독의 경제규모의 차이¹⁷⁾보다 더 큰 남북간의 경제규모의 차이, 그리고 동서독의 분단 기간보다 훨씬 긴 남북한의 분단 기간을 감안할 때 통일 한국은 독일의 5년보다 더 긴 시간을 혼란의 시기로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서독은 미리 준비를 못했지만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남북한과 동서독의 배경 이해

남북한 통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독일 통일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과 동서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할 수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독 사람들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비슷하다고

17) 1990년 당시 서독의 GNP 1,322억 달러로 167억 달러의 동독에 비해 7.9배에 달하였다. 1인당 GNP는 서독이 21,305 달러로 10,057 달러의 동독의 2.1배이다. 동독은 통일 이전 세계14위의 산업국이였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교훈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동서독의 차이와 통일이 이루어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또 남북한의 상황은 어떠하고, 독일과는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아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한 패전국이었고, 한국은 2차대전의 피해자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동시에 한반도는 남북으로,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분단 이후 44년 만에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은 이미 과거 유럽의 시민사회를 경험했고 시민사회의 유산이 남아있었다. 반면 남북한은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일제식민지를 지나는 동안 시민사회의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즉 시민들의 힘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북한지역은 식민지 이후 봉건사회에서 강력한 독재사회로 이행된 상태로 시민의식이나 합리성이 성장하기 어려웠다.

행정적으로는 독일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연방제를 채택하여 각 주마다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나 국가 권력의 많은 부분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동독은 분단 후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나 종교를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특히 없애지 않았다. 이것은 종교개혁가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마틴 루터가 동독 출신이며, 독일 시민사회의 합리성에 따라 강하게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뿐이었다. 따라서 동독지역에는 전 인구의 15%가 기독교도로 추산되고, 이들은 철학적 고민과 삶의 양식이 공산주의와 달랐기에 현실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또한 동독의 교회는 병원을 운영하여 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서독의 지원을 받아 동독의 압박 아래에서도 신앙을 지탱하며 동독인들의 정서적 탈출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동서독 통일과정에 있어 공식적인 통로로 전화와 편지, 미디어 교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동독은 70년대에 이미 서독의 TV를 볼 수 있었고, 87년 이후에는 동서독 간에 TV프로그램과 제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남북한의 경우 일상적인 전화와 편지, 미디어의 교류는 금지된 상태이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전화가 공공연한 비밀로 오가고 있고, 남한 드라마도 비공식적인 유통망을 통해 유행하고 있다. 동독에서 서독 미디어의 내용은 대

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지만, 북한의 경우 제제의 근거가 되었다.

대외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동독과 북한은 차이가 있다. 동독은 1980년대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정치적인 억압이 느슨해진 경향이 있다. 반면 북한은 내부결속과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양국 간의 전쟁 여부이다. 동서독은 전쟁이 없었고, 외부에 의해 분단이 되었기에 분단극복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은 1950년 서로 적이 되어 동족 간에 총부리를 겨누었다. 이후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경제 지원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를 무기로 남한에 공공연한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서독이 서로 '접근을 통한 변화'가 지속되어 교류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남북한 교류의 문제와 통일 논의가 '남-남 갈등'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II. 교육 통합과정의 이해

서독과 동독의 공통점은 교육을 공공재로 여겼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교육의 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통일 이후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는 이는 드물었고, 이는 동서독의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물론 북선형의 학제로 인해 적성과 선택에 따른 구분은 있었으나 이후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입자격시험인 아비투어를 볼 수 있었다. 교육을 공공재로 여기는 것은 독일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므로 동서독간의 교육통합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학제의 문제

동독의 경우 학제와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결정하며, 단선형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종합기술학교 P.O.S(Polytechnische Oberschule)에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쳤으며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2년의 상급고등학교 E.O.S(Erweiterte Oberschule)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반면 서독은 연방제 국가였기 때문에 각 연방주가 교육과정을 결정하였다. 다만 서독 각 연방주 교육체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4년에 체결된 함부르크 협약을 통해 취학연령, 의무교육기간, 교육조직 형태 등을 규정하였다. 서독은 4년제의 초등학교인 Grundschule를 거친 이후, 바로 인문계와 직업계로 계열이 분리 운영되는 복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¹⁸⁾

초기 교육통합 논의시에는 서로 비교 가능한 기본구조로 동독 체제를 바꾸되 동독의 자발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서독식의 흡수 통일이 추진되면서 결국 서독의 교육체제를 동독 지역에 이식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만다. 주로 자매결연은 맺은 주의 제도가 도입되었다.¹⁹⁾

학제가 재편되면서 기존 학교들이 폐쇄되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들로 바뀌거나 새로운 학교들이 생겨났다. 대체로 서독의 학제에 있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학교도 생겨났지만 구 동독 시절의 단선형 학제에 익숙한 주민들을 고려하여 김나지움과 실업학교가 합쳐진 종합학교(Gesamtschule) 등도 많이 생겨났다. 브란덴부르크 주의 경우 초등교육과정 6년, 4년제의 중등단계, 3년의 김나지움으로 구성되는 13년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²⁰⁾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학제가 서독 지역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통일후 구 동독지역의 주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만 서독처럼 13년이 소요되었을 뿐 다른 신설 주에서는 12년으로 가능하게 설정하였다. 이는 이전 동독 시절의 전례(POS 10년 + EOS 2년)를 따랐기 때문이다. 구 동독지역의 신연방 주들이 대학입학자격 시험인 아비투어까지의 수업연한을 12년으로 정하자 서독에서도 기존 13년에서 12년으로 줄이자는 논쟁이 일어났고, PISA²¹⁾ 이후 수업연한에 따른 학업 능력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지자 모든 주가 12년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 현재 독일의 모든 주에서 12년 수학 후 아비투어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18) 학생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 5년제의 기본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6년제의 실업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 9년 과정의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을 선택할 수 있었다.

19)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vol.22 no.1, 2012, pp.49~50

20) 강구섭, 위 논문, pp.50~51

21)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본부 주도로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이처럼 기본적으로는 서독의 학제가 동독에 이식되었으나 서독의 연방제가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 동독 지역의 학제 또한 서독의 학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았으며 구 동독 내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되었다. 또한 반대로 동독의 학제와 학교형태가 서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동서독의 학제 통합과 개편은 단선형과 복선형의 차이, 연방국가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함 가운데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한은 모두 단일국가체제로서 단선형의 학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제 개편에 있어서는 독일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2013년부터 북한은 소학교부터 고급중학교까지 11년 의무교육제(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학제 개편 이전엔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초등학교 과정만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의 학제 개편이 잘 자리잡는다면 통일 이후에는 큰 혼란 없이 학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학교의 학업기간을 1년 늘이거나 남한 초등학교의 학업기간을 1년 단축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이 통일 후 연방제를 채택한다면 서로 다른 학제 가운데 북한 학생들이 남한의 수능 시험을 보는 조건으로 1년간의 추가 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시험을 합격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 후 기존 동독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10%~15% 정도 되었고 대부분이 특권층의 자녀였다. 통일 이후에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대학 진학률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 북한에서도 중등교육을 마친 후 바로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10%정도이다. 이들을 ‘직통생’이라고 하며, 대입 실패시 직장 배정 후 일정 기간 이후, 군 입대시 군 제대 이후 다시 응시할 수는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의 대학진학을 고려해 볼 때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남한처럼 북한지역 또한 통일 이후에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교육 과정의 통합

1) 교과목과 교육 내용의 변화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교육과정 및 내용의 개편은 서독 자매주의 교육과정이 동독 자매

주에 보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동독지역에서 적용되던 일관적인 표준교육과정이 폐지되었고 인문학, 인문적 가치, 민주주의, 자기결정권 등 서독 교육의 목표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국가사회(Staatsbürgerkunde)교과는 기존 서독의 사회교과(Gesellschaftskunde)로 대체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기 위한 정치교육이 중등단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역사, 지리, 독일문학 등 정치사상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던 기존 동독의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 이념에 합당한 내용으로 모두 바뀌었다. 종교, 다양한 외국어, 환경, 철학 교과가 생겨났다.²²⁾ 구 동독 정권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통일 당시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의 수가 적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종교와 윤리 중 선택하게 하거나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에는 서독에도 없는 ‘생활-윤리-종교’라는 과목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종교 시간에 기존 서독의 학교처럼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가치와 다양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서독 사회에 공교육 하의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²³⁾

☞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의 교과목들은 대폭 개편될 것이다. 북한의 사상 교육과 관련한 교과(사회주의 도덕, 김일성·김정일·김정숙과 관련된 교과 등)가 폐지될 것이고 이를 도덕, 윤리, 민주시민교육 교과가 대체할 것이다. 북한의 모든 교과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상낙원이고 세상에서 주체사상이 최고의 사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과 내용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과 오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북한은 동독보다 매우 강한 종교 억압 정책을 펴오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종교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일방적인 특정 종교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교과목의 편성이 필요하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여 좀더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교과서의 선택 문제

교과서 또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서독 자매주의 교과서가 구 동독의 자매주에 보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독의 교과서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동독의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기

22) 강구섭, 위 논문, pp.51~52

23) 김상무,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교육행정구조 개편, 교육법 제정, 교육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vol.27 no.3, 2013, p.109

도 했다. 전환기 이후에는 각 신연방주에서 자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²⁴⁾

다양한 교과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구 동독 시절 때에는 없던 문제였다. 서독 학교들처럼 학부모들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해야만 했다.

☞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 교과서가 서독의 교과서로 대체된 것처럼,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교과서는 남한 교과서로 대체될 것이다. 북한의 교과서는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3) 교육 방식의 변화

수업 방식은 기존의 권위적인 교사의 강의 위주의 수업이었다. 이는 동독 자체가 중앙집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이었으며, 학교는 공산주의형 인간 양성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구 동독지역의 학생들은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많았다. 통일 이후 문학, 음악, 예술 등 창의성이 중요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통일 이후 학교에서는 실험, 실습, 체험, 토론 등의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게 되었다. 학생 중심의 수업은 기존 구 동독지역의 교사들에게는 생소한 방법이라 연방주에서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한편 수업 방식이 바뀌면서 평가 방식도 변화되어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에서 구술평가 등의 다면평가가 도입되게 되었다.

☞ 교육 방식 또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구 동독지역에서 겪은 변화를 그대로 북한에서 겪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또한 구 동독과 마찬가지로 주입식 암기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답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암기하기만 하면 되는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율성이 성장할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였고 이는 많은 북한이탈주민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4) 분단 역사에 대한 대처

분단 이후의 동독의 역사에 대해서 대부분 회피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구 동독시절

24) 강구섭, 위 논문, p.52

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살피고 넘어간다고 한다.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 살았던 모든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가치체계의 붕괴를 경험하였고 근본적인 의미론적 갈등을 겪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때의 상황을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체제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체제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객관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

☞ 통일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구 동독 체제에 대해 언급하기 꺼려하는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북한 체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는 분단 기간이 더 길고 경제력의 차이도 더 클 뿐 아니라 북한 자체가 현재 외국과의 교류, 언론, 미디어 등이 모두 통제된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북한의 체제가 먹을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비정상의 체제이긴 하나 통일 이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정도의 그릇된 체제이긴 하나 이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며 교육하는 것은 한 때 체제의 일부였던 북한 학생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 이후 당분간은 왜곡된 역사와 현실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고, 북한 체제 자체와 분단 이후의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함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끊임없이 통일 이전의 북한에 대해 평가할 것이고, 무엇보다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교사의 문제

1) 교사 수급 문제

독일 통일 후 교과목의 폐지와 변경, 신규 개설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외국어 교과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급증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많은 교사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 음악 교사는 부족했고 체육 교사는 일할 곳이 부족했다. 그나마 다행히도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수 전공을 통해 두 개의 교과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머무를 수 있었다. 새롭게 변한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고 새로운 교과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연방주 차원에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동서독의 교사 양성 과정이 다른 점도 동독 지역의 교사 수급에 걸림돌이 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POS 1~4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는 POS 10년만 마치면 EOS에 진학할 필요 없이 바로 교대에 진학하여 4년간의 교육 후 교사로 부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모든 교사는 서독의 교사처럼 아비투어를 치르고 종합대학에서 전공을 2개 이수한 뒤 실습 등을 거쳐야만 했다.

통일 후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사가 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짐으로 인해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란 직종의 매력이 떨어진 것도 교사 수급이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이다.

☞ 남북한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북한은 한 교사가 두 과목을 전공한 경우가 드물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경우가 많아 연수 등이 이뤄지지 않고 그 필요성도 낮아 교과 전문성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통일 이전에 비해 교사의 권위마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바, 북한 출신 교사의 수급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존 교육 내용이 왜곡이 심하고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교단에 남게 되는 교사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의 연수가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교사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있고, 남한 내에서도 사범대 출신의 재원들은 많이 있기에 통일 이후 남한으로부터 파견될 교사들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동서독 교사의 협력과 통합의 문제

구 동독지역에서 신설된 학교에서는 서독 출신 교사의 비중이 그나마 높고, 모두가 학교의 교육철학에 동의하는 교사들이라 동서독 교사간의 협력과 통합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서독 출신 교사 중에는 옛 동독지역에 세워져 있던 학교에서 유일하게 근무한 서독출신 교사도 있었다. 통일이 된다고 하여 바로 동독의 학교가 모두 서독식 학교로, 서독의 교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구 동독시절부터 이어져온 학교에서 다수의 동독교사들과 함께 근무한 소수의 서독출신 교사들은 그 곳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영향력을 주어 변화시키겠다는 기대와는 반대로 파견된 그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었다. 기존 동독 학교의 방식이 유지되는 곳에서는 서독에서는 교사로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감당해야 했다. 서독과는 달리 동독에는 아이들에 대한 친밀한 케어가 요구되었고 학생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했다. 가정방문을 실시해야 했었고, 학교 청소도 업체에서 하는 서독과는 달리 구 동독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해야 했다. 외부활동시 학생들에게 이름표를 달아주어야 했던 것도 서독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하였다.

구 동독지역으로 가서 성공한 서독출신 교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도 기존 동독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며 기다려 준 것”을 가장 중요한 노하우로 생각하였다. 실력이 있되 겸손하지 않으면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독출신 교사들이라고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았다. 비록 거주지도 학교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지만 지역 주민 전체가 바로 전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에 맞추어 살아가야 했던 상황은 말로는 표현 못할 상실감과 혼란, 두려움을 야기했을 것이다. 동서독의 교사 월급 체제가 달라 서독 출신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꼈고 서독 출신 교사에게 무언가 더 유리하다 싶으면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주말이면 서독 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과 동료 교사를 보며 삶을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는 서독 사람들에 대해 서운함도 느꼈을 것이다.

☞ 인터뷰 한 사람들은 통일 후 극심한 혼란이 5년간 이어졌다고 하였다. 우리는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크고 분단 시기도 훨씬 길기 때문에 혼란의 시기, 갈등의 시기가 더 장기화 될 수 있다. 한편 통일 후 북한 학교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일이후 전환기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대로 학교를 유지하고 과목과 제도 변경에 따른 교사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냉난방이 원활하고 급식이 이뤄지고 멀티미디어 교육이 수월한 남한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낙후된 북한 학교로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비협조적인 동료 교사들이 많을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 문을 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도 당분간은 동독 스타일로 교육해야 했던 옛 동독지역 학교에 파견된 서독출신 교사들처럼, 남한에서 파견되는 교사들도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북한 학교에서 교육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점심 때에는 점심 먹으러 다녀오라고 학생들을 집에 보내고,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생 잡으러 쫓아다니고, 등교하지 않으며 잡으러가고, 당분간은 농촌지원을 나가야 해서 교사들도 함께 모내기 전투에 동원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급식시설이 없으니 선생님들도

도시락을 싸야 할지 모르겠다.

통일 이후 북한에 가서 교육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의 남한 환경에서 학생들이만 북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전환기 중 한참 동안은 지금의 북한 교육 환경에 나 혼자 남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또한 서독출신 교사가 전한 노하우처럼 선진 교육의 전수자가 아닌 끊임없이 인내하고 들어주고 낮아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권위의 문제

중앙집권적이었던 동독 사회는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 유지하기 위해 사상의 주입, 권위의 복종을 강조하였고 이는 학교 교육체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독 교사들은 공산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선봉으로서 학생들에게 사상을 가르쳤고 강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엔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은 연방주로 이관되어 나누어졌고, 교육의 목표 또한 공산주의형 인간 양성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잠재력의 발견과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탈권위적이고 학생의 학습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존 동독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을 대할 때 이전처럼 권위적으로 대하거나 학생들이 예전처럼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게 되어 그로 인한 갈등이 이어졌다고 한다.

 교사 권위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 비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의 교사 권위는 많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북한에서 교사들은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가장 선봉에 섰기에, 그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변화는 교사의 권위 또한 실추시킬 것이다. 북한 교사로서 기존 교사직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국가가 부여한 권위를 내려 놓고 자신만의 권위를 쌓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는 교육 환경 변화에 얼마나 빠르고 적합하게 적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4) 학생의 적응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 충격이 작았다. 한 동독출신 교사는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어 월요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 17세~18세의 EOS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구하려 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 했다.

‘난 이제 끝장이다’는 식의 생각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더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변수가 된 것은 부모였다.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을 경험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학교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어린 학생들일수록 남한 체제에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학부모이다. 통일 이후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서라도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지속하여 학생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가정환경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4. 기타 문제

1) 인구 감소의 문제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1989년 4만~5만 명이던 한해 출생자가 1991년에는 1.7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은 1.5만명 정도이다. 2025년경에는 9천명~1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독일 전 지역에 걸친 문제이긴 하나 구 동독지역의 인구감소는 통일 이후 급격히 이뤄진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첫 번째로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주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작센안할트 주의 경우 학생이 40명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교도 있으며 매년 5개교를 폐교시키는 중이다. 특히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구 동독지역의 경우 외부인의 유입 없이는 인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외부인에 의해 장악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막데부르크시의 경우 통일 이후 설립한 동김나지움처럼 평판이 좋은 학교가 서독 주민들이 이주해 오는 데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가족단위로 이주할 경우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구 안정화를 위해서는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인구 안정화는 곧 학교의 존속기반인 학생 수의 안

정화와 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은 무한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남한과 비교되는 환경 때문에 통일 직후 전환기에는 북에서 남으로의 상당한 인구이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족 단위로 북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학교 내에서의 과거 청산의 문제

슈타지는 동독의 비밀경찰, 또는 국가 보위부라 불리는 정보기관으로서 반체제 인사 감시, 탄압, 국경 경비, 해외정보 수집, 대외 공작 등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치밀한 감시는 모든 동독 주민들을 움아매었고, 자유를 속박하였다. 슈타지 정보원은 학교에까지 침투해 있었다. 슈타지의 감시 대상은 16~65세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들도 감시 대상이었다. 슈타지는 부모가 반체제 인사로 의심되면 학생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하였으며, 실제로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진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대학에 진학했던 10~15%의 학생들은 슈타지의 눈밖에 나지 않은, 가족과 그 학생에 대한 정치사상검증을 통과한 이들이었다.

통일 이후 슈타지 협력교사에 대한 청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슈타지와 협력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그 협력 정도에 따라 차등은 있었지만 무조건 벌하는 것으로 대처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공개적으로 재판하거나 처단하지 않았으며 어느 날 근무지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조용히 진행되었다. 슈타지에 협력한 교사들 중 정년이 가까운 이들은 조기퇴직하도록 하였고 후에 연금도 주었다. 많은 수가 교직에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해고될 정도는 아니나 어느 정도 깊이 관계가 있었던 교사는 행정직으로 돌려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다.

☞ 슈타지가 동독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통제하였던 것처럼 북한 학교에서도 보위부나 경찰에서 정보원을 두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식적인 자료는 찾기 힘들다. 공식적으로는 북한 학교마다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는 당 지도원이 파견되어 있어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 시간에 자아비판, 호상비판을 하며 자신의 행동과 동료의 행동을 주체사상에 비춰 반성하고 비판하도록 되어 있다. 동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학교 내 정치사상교육 담당자와 보위부 협력자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통일 독일의 경우나 남아프

리카에 만델라가 집권한 이후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남북한 통일 이후에도 경중에 따른 처벌과 용서가 뒤따를 것이다. 다만 학교 교육 현장이라는 상황에 맞게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진행되길 바란다.

III. 독일 통일에서 배우자

우리는 남한에서 통일을 준비하며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어쩌면 통일 상황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최전선의 사람들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통일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삶이다. 통일을 선형하며 그 한복판에 있는 여명학교의 교사들도 이번 독일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서독의 상황과 남북한은 너무 달라서 독일통일을 보고 남북한 통일에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남한식의 흡수통일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소회와 이번 독일연수과정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통일이 어떤 식으로 되던 간에 북한주민들은 더 발전한 남한을 변화의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통일 이전에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와 지원을 통해 통일비용을 선지불했던 것이 통일을 앞당기게 되었으며, 동독인들이 자발적 동독 체제 종식과 서독체제의 수용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통일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특히 동-서독 출신자들의 회한을 통하여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독일통일을 통해 배우는 가장 큰 소득이 될 것이다.

1. 통일과정에서의 정책적 성공

1) 서독의 동독지원

통일이전 서독에서 동독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정리하면 "접촉점을 넓히고, 꾸준히 지원하였으며, 동독 정치범들의 수용 등 인권과 연계된 지원에 대하여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통일이전 탈동자들은 서독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았으며 이러한 소식은 바로 동독에 전해졌다. 또한 통일이전에 서독에서 온 편지와 소포들은 동독주민들에게 바로 전달되었으며, 동독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서독의 TV를 시청할 수 있었으며, 라디오는 동독전역에서 청취가 가능했다.

이러한 동서독 접촉점을 확대하는 식의 지원은 동독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동독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서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며, 서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지원이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서독정부에서는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동독에 지원을 할 때에는 정치범들의 수용이나 인권문제와 연계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동독시민들의 인권의식 개선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 통일과정에서 교육제도

통일 전 동독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아비투어를 칠 수 있는)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15%였다. 동독의 학교는 군대다움으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었기에 대학진학자들은 대부분 특권층의 자녀들이었다.

동독에서는 "아이들을 장악하는 것이 미래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교육을 통한 체제유지를 꾀하였다. 그러나 통일이후에 서독의 교육체제가 이식되면서 동독의 학교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였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특권을 없앴다. 또한 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또 학교 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육정책은 동서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2. 동독인들의 조언

1) (남한사람들이 북한에)가지 말고, (북한사람들을 남한에) 초대하라!

여명학교 교사들을 포함하여 통일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북한을 회복하고 북한인민들을 돕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한 마음으로 불편하겠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북한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나눌 때 동독출신 교사는 “내가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것은 직접 서독으로 가 보았을 때”라고 말하며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하지 말고, 북한의 교사들을 남한으로 초대하라”고 조언한다. 우월적지위에서 북한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북한사람들에게 남한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지원이라는 것이다.

2) 북한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우리가 인터뷰한 동독 출신자들은 "시간이 걸리고 실패를 할지라도 북한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조언하였다. 아무리 좋고 완벽한 것을 가져다주어도 북한사람 스스로가 얻어 낸 것이 아니라면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것이며, 2등 국민이 되었다는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상처는 통일 이후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늦더라도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북한인민 스스로 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스스로 배워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려 주고, 부족한 의견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늦어 보이지만 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3. 서독인들의 조언

1)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

“우리는 동독과 서독으로 불렸어도 같은 독일이 아니었다. 문화가 전혀 달랐다. 남북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또한 다른 세계의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라”고 조언하였다. 비록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서로 분리된 체 다른 체제에서 다른 문화를 누리며 살았기에 다른 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사람들이 통일에 앞서 북한 문화의 뿌리를 살펴보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 뿐 아니라 심연의 의미까지도 파악해야 하며 다름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동독출신 사람들은 통일 이후의 경험에 대해 “우리는 머리를 다시 달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동독 머리를 떼어내고 서독의 머리를 달아야 하였다”, “동독에서는 트라비 자동차를 사기위해 18년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통일이 되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 자체도 어려웠다.”, “나는 (통일이 되고 25년이 지난) 아직도 이해가 다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동독인들은 통일로 인해 너무도 다른 타문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동독보다 더 심각할 것인데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2) 북한사람들의 혼란을 이해하며,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우리 서독사람들은 통일 과정에서의 동독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을 이해하고, 과거 동독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시했다.”라고 우리가 인터뷰한 서독 출신자들은 통일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겸손히 이야기하였다.

동독출신 사람들도 통일 상황에서 자신들의 황당함에 대해 “통일되기 전까지는 동독사람들은 월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모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도 월급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서로 민망했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저녁에 감기약 먹고 자면서 티비 뉴스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아파서 헛꿈을 꾸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뉴스 이후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통일 전에는 직장 상사는 욕해도 정치지도자는 욕하면 안 되었는데, 통일 후에는 총리는 대놓고 바보라고 욕해도 직장상사욕은 못한다. 이게 뭐냐는 혼란이 있었다.” 고 그들의 황당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동-서독 간에 교류가 통일 전에 활발했지만, 정작 동독사람들에게 통일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가 인터뷰한 동독 사람들은 통일 이후 성공한 부류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 본 서독인들은 통일이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돌이키면서, 자신들이 그때 더욱 동독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했었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모든 게 차단된 채 더 장시간 분단되어 살아 온 북한주민들은 동독사람들보다 더 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며, 남한사람들은 그들의 혼란을 이해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3) 북한사람들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지 말라!

서독사람들은 우리에게 “국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국민의 능력까지 폄하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비록 바보짓을 했더라도 국민의 능력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고 하며 자신들이 동독주민들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우리에게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주민들의 능력을 폄하하여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

4. 동-서 독인들의 공통된 조언

1) 통일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과 태도가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인터뷰한 동서독 출신의 사람들은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철학과 태도가 있다면 어떤 환경도 극복해 낼 수 있고 진정한 화합을 이뤄낼

수 있다." 고 이야기하였다. 어떠한 환경, 즉 남한에서 북한에 가서 생활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라도, 또 통합의 과정에서 "하나 되기 원하는 진심"이 전해진다면 외형 뿐 아니라 내면의 연합까지 이뤄낼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2) 가족이 함께 가라. 삶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사람들을 남한으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교사를 포함한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을 도와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동-서독사람들은 모두 다음과 같이 조언하였다.

“가족이 전체 이주하고 그 곳에서 삶을 시작하라! 이것 자체가 옛 동독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들을 존중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금요일마다 서독으로 향하는 기차역에 많은 서독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동독인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서독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동독 사람들의 삶의 터에서 동독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동독 자체가 살 곳이 못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것이며, 그래서 더 마음이 상하고, 동독인들을 서독인들이 업무의 대상으로만 느끼는 것 같아 거부감을 갖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북한지역주민으로 살아가면서 갈등과 해결을 반복하다보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가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3) 능력 있고, 겸손하며, 성품 좋은 사람을 북으로 보내라!

우리는 연수기간 동안 북한 재건을 위해 남한사람으로서 북한에 일할 사람들을 보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을 보내야 하며, 또 어떤 서독사람들이 동독에서 인정받았었느냐며 동서독 출신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며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도 면에서는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현지인(북한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겸손히 말하고, 북한사람들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며 들어주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보내라고 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북한에 도움도

되고 통합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IV. 우리의 제언

10년 이상 탈북자 지원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교육하며 갖게 된 생각들과 이번 독일 연수 과정을 통해서 배우 것은, 통일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체제 전환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일 전 구축하여야 하며, 통일을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 교육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준비 없는 통일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동독사람들은 갑자기 닥친 통일에 대하여 “갑자기 바뀐 상황에 머리가 텅 비었다. 어디에 자신을 맞춰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사람들 중엔 슈타지 피해자들도 있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슈타지의 압제가 트라우마였던 사람들이다. 통일이 되어서 어디에 맞춰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슈타지의 피해자에게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트라우마가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준비 없이 입국하거나, 남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의 상황도 그럴 수 있기에 북한이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남한사람들이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요즘 통일이 “대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자칫 남한 사람들의 경제적 “대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칫 북한사람들을 소외시켜 불만을 갖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합을 저해하고 북한사람들에게는 통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통일사회를 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남북 모두 상생하는 “대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심리적 지원 시스템과 여러 차원에서의 면밀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 차원에서의 면밀한 통일준비는 통일시점에서 북한가정의 안정과 희망을 가져다준다. 동시에 다음세대의 통합을 촉진하는 가장 안정적이며 대안적인 통일준비이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 통일 전 북한과의 접촉점을 넓히자!

통일이전에 북한과의 교류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모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통일의 실질적인 세대가 될 것임으로 서로 만나고 협력하여 남북한 간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이탈주민을 통한 통일준비를 하자

동서독의 통일을 남북한과 비교해 볼 때, 부러운 것은, 분단의 기간이 짧고, 동서독의 경제격차가 적으며, 동독에는 기독교의 유산과 합리성이 있으며, 전쟁을 치루지 않았기에 통일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남북한 통일이 동서독의 통일보다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선배 독일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과 먼저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 우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동독교사들이 "당신들이 가지 말고 북한사람들을 초청하여 배울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현상황에서 북한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비록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국경을 넘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독사람들의 표현처럼 "남한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연수받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통일을 준비시켜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노동”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자!

통일이전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사회적응하면서 겪는 과정은 통일이후 북한주민이 개방화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비견될 수 있다. 언젠가 아데나워 재단의 부총재가 한국에 방문했었다. 동독출신의 여성이었는데 그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였다. “탈동자들이 통일이전에 서독에서 서독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과 동독주민들이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부회장

은 현장을 아는 전문가이기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며 좋아하였고, 시사성이 큰 대답을 하였다. “탈동자들이 서독에서 통일 전에 적응을 할 때에는 매우 부지런하고 역동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선 탈동자들이 통일 전에 서독에서 적응하던 과정들이 아주 천천히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모여 있는 것을 부적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모두 통일 시대의 자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노동”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를 예측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들의 부적응을 성공으로 만드는 정책적 개입도 필요하다.

2) 북한이탈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현장 경험의 기회를 주어 성장을 유도하자.

우리는 통일 이전에 우리에게 와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유학생이나 연수생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이 통일시대 북한에서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겸손한 인성과 실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각 영역에서 실무적인 경험을 갖게 하고, 여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성장시켜야 한다. 특히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학교의 모든 조직에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여러 과정 끝에 전문성을 갖게 되고,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직접 북한에 가면 북한에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들의 고용은 남한 주민에게도 살아있는 통일 교육이 될 것이다. 여명학교에도 북한출신 교사가 있다. 그동안 우리의 준비부족으로 북한출신 교사의 선발을 미뤘는데, 올해 북한교사 출신 교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여명학교에서 북한교사를 모실 때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인성과 실력을 검증하여 선발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몇몇 응시자들은 문제를 삼기도 하였지만, 남한 사람들이 겪을 과정을 북한사람들도 겪어야 나중에 더 프라이드를 갖기 때문에 잡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였다.

북한 출신 교사와의 협력은 처음 기대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다. 북한교사를 통하여 남한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되었고, 북한과 북한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특별히 학생들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잘 알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북한출신 교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남한 교사들의 2-3분의 몫을 담당하는 것 같다. 또한 북한교사도 매우 영민하여 나날이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은 통일의 현장이 늘어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남한에서의 사회 통합과 더불어 저절로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닥부터 겪어 낸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북한이탈주민이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제도를 만들 때에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제고시켜 통일 이후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4. 통일을 교육제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아쉬운 점은 통일을 계기로 서독의 교육체제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서독 교육체제가 좋기는 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 독일의 교육체제를 돌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통일이 되기 전 남한의 교육시스템을 점검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 현 상황처럼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사적 자본이 되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교육 뿐 아니라 학교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어 수직적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혹 독일의 경우처럼 남한의 교육체계가 북한 교육체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 교육을 통해 통합에 원동력을 얻은 독일과는 달리 오히려 교육으로 인하여 남북 간의 차별이 심화될 뿐 아니라 북한내부의 심각한 차별을 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일과 통합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내에서 차별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여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5. 통일학교를 만들자!

1) 전환기 교육체계를 만들자

독일 통일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혼란한 시기인 5년 여 간의 전환기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통합의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 체제전환기를 대비하여 새로운 교과목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방법도 개발하여야 한다. 기존에 북한에서 배웠던 정치 사상과목과 김일성 가계에 대한 우상화 과목은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는 동독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도구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의 내용이 왜곡이 심하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과목과 외국어 과목, 종교, 윤리 과목이 새로 개발되기도 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교과내용도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전환기시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교과서를 개발하고 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활용하여 검증받고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에서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보완 교재이며, 이 교과서도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보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2) 북한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를 만들자!

옛 동독지역에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동독출신 교장은 “우리가 호네커(전 동독지도자)한테 배운 것은 아이들을 장악하는 기관이 미래를 장악하는 것”이고 했다. 그만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통일의 혼란을 줄이고 통합까지 이루는 데에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제전환기와 북한에서 필요한 교육모델링과 학교 모델링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 때, 북한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맞고,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들을 주체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육의 주체들로 구성된 통일 교육 연구모임을 만들자!

통일과 통합이라는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하여서는 각 교육주체들이 연합한 현장 중심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모임이 있어야 한다. 이 모임을 통하여 통일 환경에 맞는 교육 통합과 교육발전을 모색하려면 북한출신교사와 북한이탈청소년으로서 남한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 일반 공교육 교사,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들이 어우러져 한다. 이 연구회를 통하여 통일교육정책을 제안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제안할 수 있겠다. 나아가서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기획·운영하여 통일시대 북한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남한교사들의 연수를 선행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해 볼 수 있다.

4) 불이익을 감수하자.

남북한이 독일처럼 흡수통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에서 남한의 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남한사람이 북한지역에 가서 삶을 살아낸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이 적응이 어려울 때는 남한제도와 남한사람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부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통합을 희망하는 진정성일 것이다. 남한교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했을 때 북한사람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느끼고 우리를 친구로 받아줄 것이다. 이것을 앞서서 실천할 계층은 교사들이다. 독일통일에서처럼 통일이 된다면 교사와 법률가, 행정가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며 불편을 감수하기에 서독에서는 동독으로 파견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와 승진에서 유리하게 해 주었다. 이는 우리가 산간벽지 근무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동서독보다 통합에서 불리한 상황인 남북한에서는 오히려 북한으로 파견되는 남한 교사들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한다면 북한주민들은 교사들의 진정성을 알아 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빨리 신뢰를 얻는 통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통일이전 교사들이 먼저 "자발적 불편"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모임을 만들어 교육통일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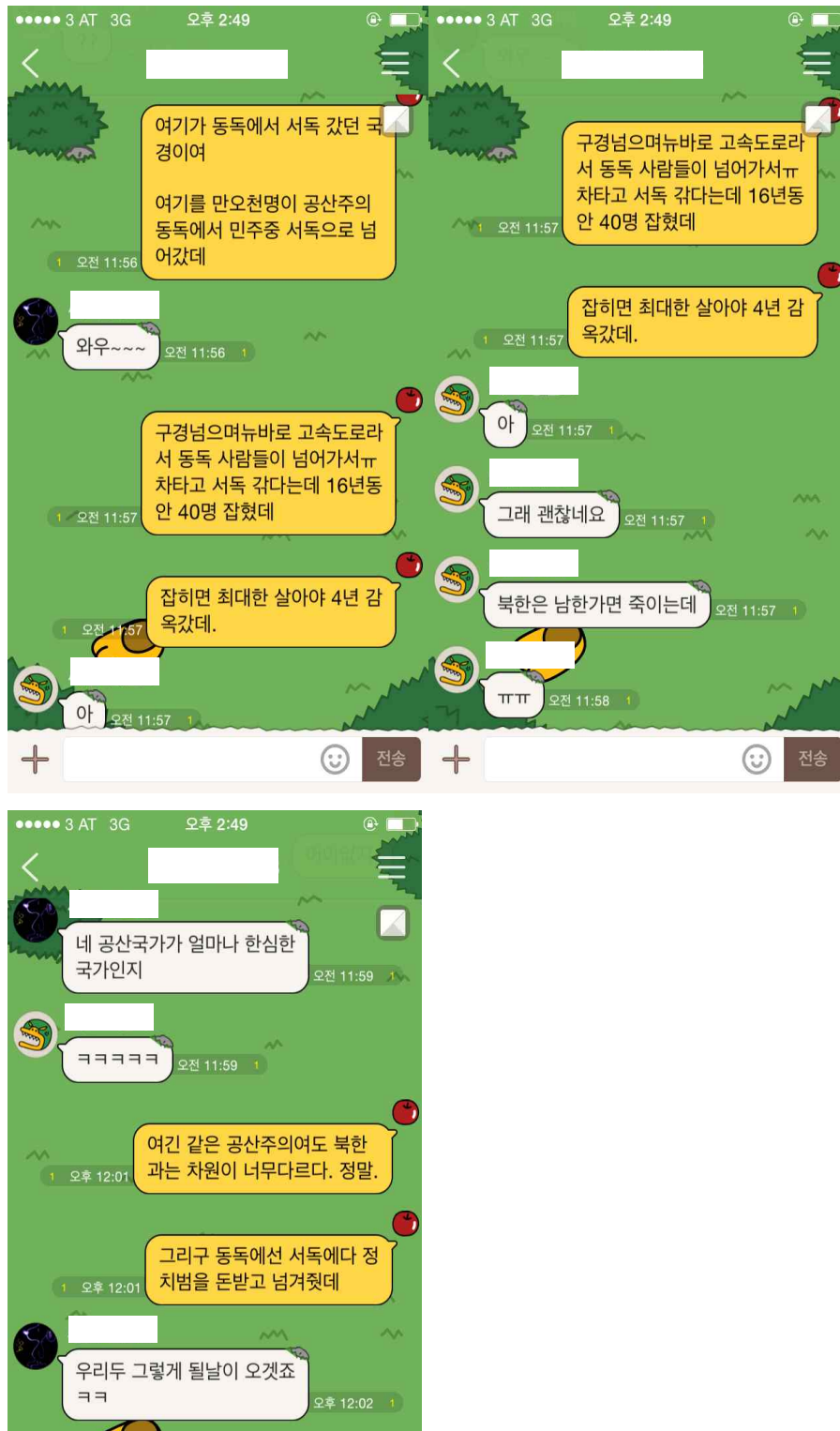
5) 통일학교는 철학이 있는 곳이다.

통일학교 만들기라고 하면 장소, 건물, 형태와 제도를 생각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배운 것은 철학과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인내력과 인성을 갖춘 실력 있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동독사람이나 북한사람을 섬기면 그곳은 이미 통일 학교가 되어 간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배웠다. 즉 통일학교 만들기는 형태이전에 철학과 마인드의 문제이다. 준비된 철학과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이 올인해서 북한주민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결국 통일을 이루어 낼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독일에 간다. 그 곳에서 독일의 통일 제도, 기술, 방법을 익히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연수는 독일에서 통일의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기보다 동독지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와 철학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와야 할 것이다. 우리도 처음에 통일의 기술을 배우러 갔었는데 연수를 통해 독일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철학과 마인드를 배우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인 것 같다.

● 독일 연수의 내용을 공유한 후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반응

- 마리앤본 국경지역의 사진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난 후



(2) “왜 힘들게 장벽을 무너뜨렸나요? 이미 통일 다 됐네요”

독일 연수를 다녀온 후 학생들과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통일 이전에 동방정책으로 전화, 편지, 소포가 오가며 상당부분을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전하자 한 학생이 이야기했다.

“이미 통일 다 됐네요. 왜 힘들게 장벽을 무너뜨렸나요?”

(3) 익숙한 흔적



학생들에게 위의 동독 초등학교 교과서와 작센안할트 주의 옛 문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위의 사진에서 공산주의의 흔적을 찾아보라 질문했다. 학생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바로바로 대답했다. 스카프, 낫, 망치, 노동자, 붉은 문장, 레닌 등... 우리 학생들의 머리 속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흔적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문지

이름 :

질문지

이름 :

질문지

이름 :

질문지

이름 :

‘통일학교 만들기’
2014. 9. 12.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Konrad
Adenauer
Stiftung



여명학교
Yeomyung School